

# 월간 SW 산업 동향

2012. 10월호



• Package Software    • IT Service    • Embedded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I . Summary .....	1
II. 월간통계 .....	4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	5
2. SW산업 관련 통계 .....	7
III. 국내외 정책 동향 .....	13
1. 국내 .....	14
2. 해외 .....	27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29
1. 부문별 시장 동향 .....	30
2. SW 기업동향 .....	40
V. 주요 리포트 .....	48
1. 일상의 기록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라이프트래킹 (Life-Tracking) .....	49
2. 버티컬 플랫폼의 시대가 온다 .....	53
VI. 월간 SW 이슈 분석 .....	57
1. 글로벌 빅데이터 프로젝트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등장 .....	59
2. 스마트 교육 시장의 발전 .....	61

# I . Summary



## ◆ 월간 통계

- 2012년 9월 SW 생산액은 2조 6,601억 원, 수출액은 2억 1,329만 달러
- 2012년 일본 빅데이터 시장 전년대비 38.2% 성장, 197억 엔 시장 형성
-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2013년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10대 기술 및 트렌드 발표
- 2016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트래픽은 4배가량 증가해 6.6제타 바이트(ZB)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상반기 무선인식(RFID)/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관련 기업 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기업들의 매출과 투자는 감소
- (KRG) 모바일 환경의 확대, 웹 UI와 UX 수요의 증가로 2015년까지 국내 RIA 시장 규모가 연 20.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 SW산업 국내외 정책

- (지식경제부) '클라우드 지원센터' 역할 확대, IT 기술·시장 전망과 분석을 통한 미래 대비,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 추진, 'SW 산업발전 및 SW융합 활성화를 위한 WBS 수행기업 간담회'를 개최,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등을 개정,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
- (행정안전부) 「2012 데이터센터월드 컨퍼런스」에 참가,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부기관 간 이메일 및 자료유통 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개최, '글로벌 CIO 네트워크' 결성 주도, 「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 기관설명회 개최,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MOU 체결, 중동 및 북아프리카 공공거버넌스 구축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망을 통한 피싱(Phishing) 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사전점검 추진, 한국, ICT 인프라 부문 세계 1위,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발간, 근거리통신망(NFC) 국가표준 확정,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 (국방부) 전시 전략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 적용 추진

- EU,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 미국, 정부 부처간 공개SW 공동 개발 확대
- EU,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정 권고
- 싱가포르 의회, 개인정보보호법(안) 통과

####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패키지SW) 2012년 국내 BI SW시장 860억 원 전망
- (IT서비스) 대형 IT서비스기업,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응 위해 신사업과 해외진출로 돌파구를 모색, IT서비스 기업, 재벌 기업집단의 SI사업 발주형태가 외부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 중견 IT서비스 기업, 공공 시장 공략을 위해 인력 충원과 개발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
- (신사업) 기업용SW업체, 소비자(B2C)용 '모바일 앱' 시장 진출

#### ◆ 주요 리포트

- 「일상의 기록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라이프트래킹 (Life-Tracking)」, 삼성경제연구소('12. 10)
  - 개인의 행동 및 신체 상태를 분석해주는 '라이프트래킹' 서비스 확산
- 「버티컬 플랫폼의 시대가 온다」, KT경제경영연구소('12. 10)
  - 빅자이언트들의 틈새에서 부상하고 있는 신흥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 ◆ 월간 SW 이슈 분석

< 글로벌 빅데이터 프로젝트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등장 >

-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시각화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등장

< 스마트 교육 시장의 발전 >

- 21세기 학습자 역량 개발을 위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인 스마트 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름

## II. 월간통계



#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 가. SW 생산액 분석

- 2012년 9월 SW 생산액은 2조 6,601억 원,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
  - 패키지 SW 생산액은 3,26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
    - ERP시스템 구축 및 SCM 체계 고도화 사업 등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유지
  - IT서비스 생산액은 2조 3,33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
    - 경기 위축과 공공부문 사업 변수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및 해외진출 노력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 지속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패키지 SW	2012년	3,003	3,273	3,853	3,151	3,325	3,757	3,262	3,122	3,263
	2011년	2,668	2,769	3,163	2,915	2,851	3,211	3,147	2,964	3,109
	증감	12.5%	18.2%	21.8%	8.1%	16.6%	17.0%	3.6%	5.3%	4.9%
IT 서비스	2012년	18,660	19,104	20,621	19,999	20,998	24,138	22,042	21,089	23,337
	2011년	17,334	17,949	20,789	19,022	20,675	21,911	19,961	19,785	21,978
	증감	7.6%	6.4%	-0.8%	5.1%	1.5%	10.2%	10.4%	6.6%	6.2%
합계	2012년	21,663	22,378	24,474	23,150	24,323	27,896	25,303	24,210	26,601
	2011년	20,002	20,718	23,952	21,938	23,526	25,122	23,109	22,750	25,087
	증감	8.3%	8.0%	2.2%	5.5%	3.3%	11.0%	9.5%	6.4%	6.0%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2. 10)

## 나. SW 수출액 분석

- 2012년 9월 SW 수출액은 2억 1,329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4.9% 증가
  - 패키지 SW 수출액은 9,16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0.9% 증가
    - 해외 수출에 강세를 보이던 보안, 의료 솔루션과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특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 본격화
  - IT서비스 수출액은 7,646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
    - 전자정부, 금융IT 등과 함께 베트남 데이터 센터 사업 수주전이 가속화되면서 동남아 수출이 증대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패키지 SW	20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66,174	75,704	84,032	91,667
	2011년	21,268	19,118	28,813	20,614	22,535	34,716	25,842	25,524	30,464
	증감	-4.9%	14.1%	-10.4%	28.6%	102.2%	90.6%	192.9%	229.2%	200.9%
IT 서비스	20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118,413	98,039	114,965	76,461
	2011년	73,115	72,381	91,267	88,603	85,983	84,449	80,921	92,827	57,949
	증감	5.6%	10.0%	5.6%	36.9%	76.7%	40.2%	21.2%	23.8%	31.9%
합계	20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184,587	173,743	198,997	213,293
	2011년	94,383	91,499	120,080	109,217	108,518	119,165	106,763	118,351	121,987
	증감	3.2%	10.9%	1.8%	35.4%	82.0%	54.9%	62.7%	68.1%	74.9%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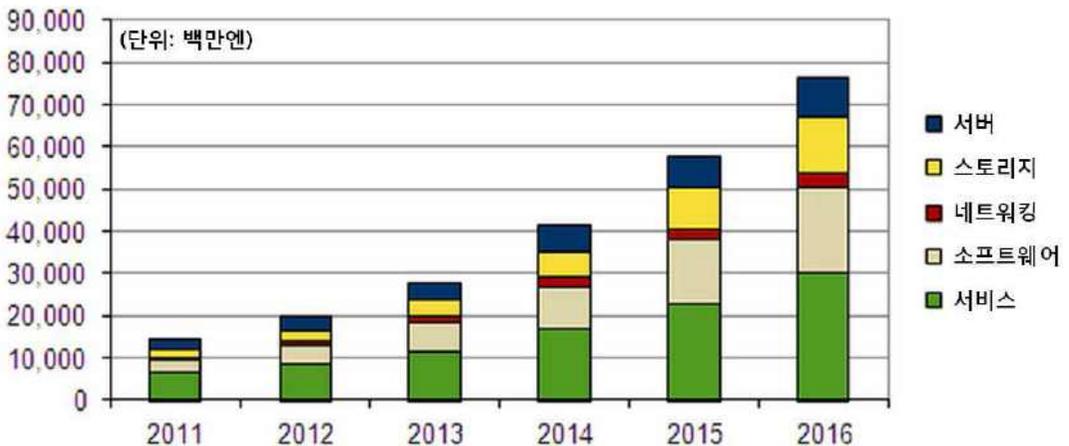
자료: KEA(2012. 10)

## 2. SW산업 관련 통계

### 가. 일본 빅데이터 시장 현황

- 2012년 일본 빅데이터 시장 전년대비 38.2% 성장, 197억 엔 시장 형성
  - (IDC) 2011년의 142억 5000만 엔 대비 38.2% 성장
    -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39.9%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765억엔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는 스토리지와 SW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빅데이터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스토리지와 SW부문은 2016년까지 각각 연평균 50.4%와 45.3%로 성장해 전체 시장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산업별로는 미디어·정보 서비스 분야가 동기간 연평균 41.0%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일본 빅데이터 시장이 전체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아직 여명기에 해당
    -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도입효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일본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 규모, 2011-2016 (단위: 백만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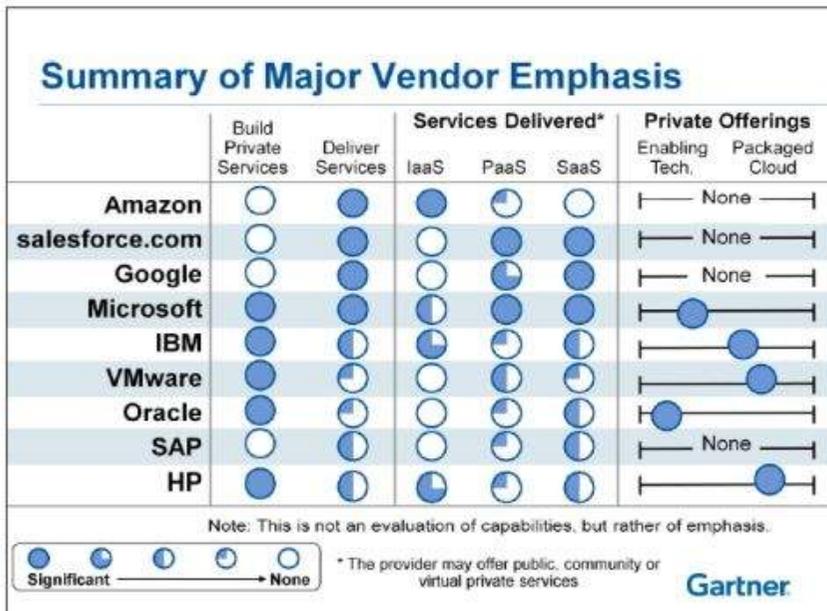


자료: IDC (2012. 10. 3)

## 나.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가트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결과 발표
    - 아마존웹서비스 EC2는 2014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표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광범위한 고객을 강점으로 인프라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확대되는 방향에서 주목되고 있음
  - 세일즈포스닷컴은 클라우드 기반 CRM 서비스로 시장을 석권
    - 그러나 CRM 전문 업체라는 틈새시장에서 확대하는데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
  - 구글 앱엔진은 촉망받는 사업자로 언급
    -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앱엔진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약점으로 지적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별 사업방향



자료: 가트너 (2012. 10. 29)

## 다. 세계 2013년 10대 전략 기술 전망

- 2013년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10대 기술 및 트렌드 발표
  - (가트너) 모바일 기기, HTML5, 퍼스널 클라우드, 전략적 빅데이터, 인메모리 컴퓨팅 등을 선정
    - 향후 3년 간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들로 구성

2013년 10대 전략적 기술 트렌드

기술 트렌드	내용
모바일 기기 전쟁	-2013년에는 모바일 폰이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액세스 기기로서 PC를 추월하게 될 것이며, 2015년에 이르면 선진국 시장에서 판매된 핸드셋의 80% 이상을 스마트폰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HTML5	-HTML5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네이티브 앱이 웹 앱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나타남
퍼스널 클라우드 (Personal Cloud)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콘텐츠를 보관하고, 자신의 서비스와 선호하는 대상에 액세스하며 자신의 디지털 생활을 집중시키는 장소는 PC에서 퍼스널 클라우드로 점차 대체
기업용 앱 스토어	-2014년에 이르면 많은 조직들이 전용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직원들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IoT(Internet of Things)	-소비자 기기 및 물리적 자산 등과 같은 물리적인 아이템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인터넷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개념 -다양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
하이브리드 IT 및 클라우드 컴퓨팅	-IT 부서들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IT 관련 활동을 조율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와 같은 변화를 현재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 예상
전략적 빅데이터	-데이터 볼륨, 다양성, 속도 및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접근 방법들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요구 -데이터 서비스 및 메타데이터와 함께 연결된 콘텐츠 관리,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마트 및 특수 파일 시스템 등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으로 전환
실행 가능한 분석	-분석은 점차 상황에 맞게 실행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추세 -클라우드 기반 분석 엔진과 빅데이터 저장소에 연결된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상
인메모리컴퓨팅 (IMC)	-많은 벤더들이 향후 2년 간 인 메모리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주류로 끌어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
통합 에코시스템	-낮은 비용, 단순성 및 보다 확실한 보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들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 및 에코시스템으로 전환 예상

자료: 가트너 (2012. 10. 25)

## 라.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 동향

- 2016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트래픽은 4배가량 증가해 6.6제타바이트(ZB)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시스코) 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이 데이터센터 트래픽의 3분의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6.6제타바이트는 92조 시간의 음악 스트리밍과 16조 시간의 웹을 통한 비즈니스 회의, 7조 시간의 온라인 HD 비디오 스트리밍에 해당하는 대용량 데이터
  - 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1~2016년 연평균 성장율(CAGR)이 44%에 달해 2011년 683엑사바이트(EB)에서 2016년에는 4.3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데이터센터의 트래픽 급증은 대부분 데이터센터 내부와 클라우드 컴퓨팅 워크로드 때문으로 분석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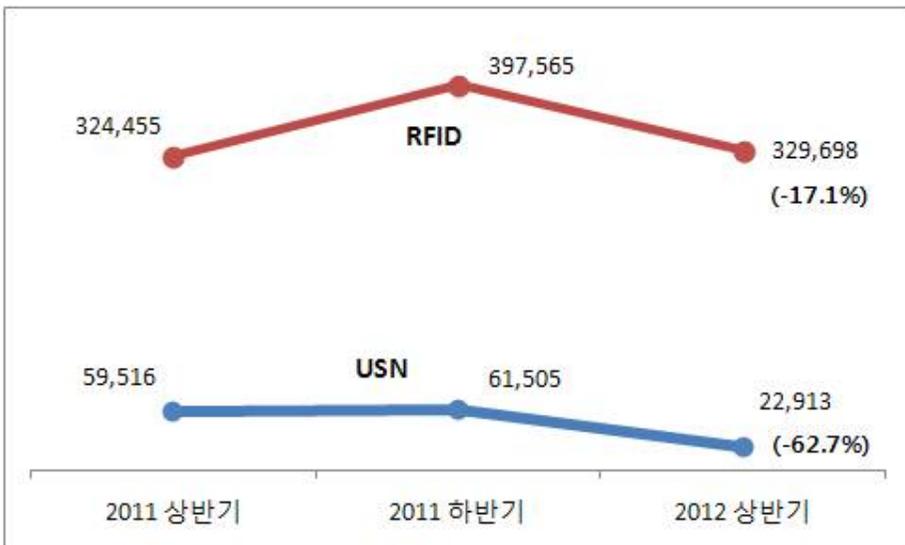


자료: 시스코 (2012. 10. 25)

## 마. 국내 RFID/USN 기업 동향

- 2012년 상반기 무선인식(RFID)/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관련 기업 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기업들의 매출과 투자는 감소
  - (한국RFID/USN융합협회) 2012년 상반기 RFID/USN 기업은 382개로 2011년 상반기 379개, 하반기 375개보다 증가
  - 2011년 상반기 RFID/USN 기업 매출 규모는 3,839억 원이었으나 2012년 상반기 매출은 3,526억 원으로 전체 시장 매출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상반기 수출은 404억 원이었으나, 2012년 상반기에는 153억 원에 그쳐 수출 역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과 RFID/USN 부문에서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가 원인일 수 있음

2011-2012년 반기별 RFID/USN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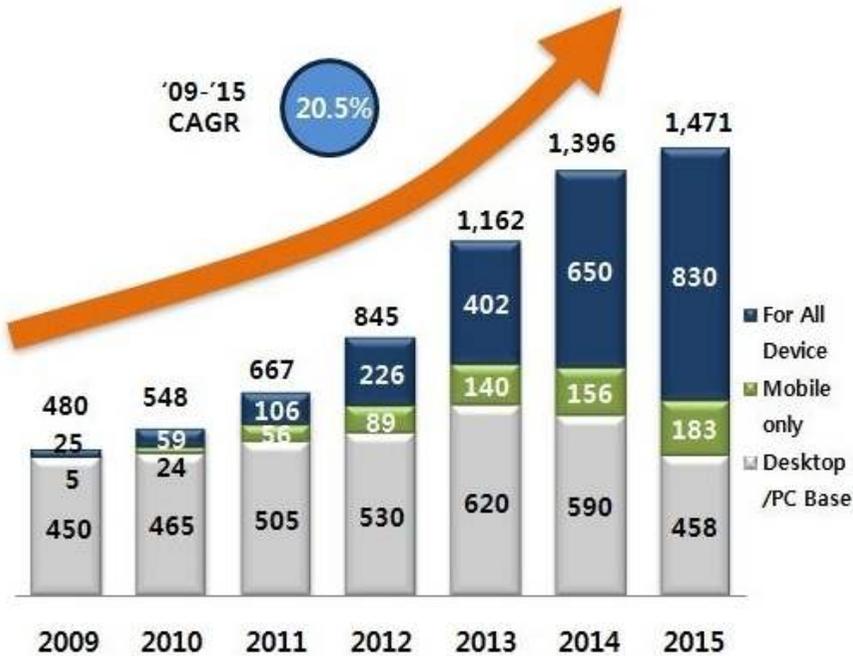


자료: 한국 RFID/USN 융합협회 (2012. 10. 17)

## 바. 국내 리치인터넷애플리케이션(RIA) 시장 동향

- (KRG) 모바일 환경의 확대, 웹 UI와 UX 수요의 증가로 2015년까지 국내 RIA 시장 규모가 연 20.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2009년 480억 원 규모였던 국내 RIA 시장 규모는 지난해 667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6.6% 증가한 845억 원대로 추산
    - 시장 규모는 내년 1천162억 원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1천471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기업들이 업무와 대고객 서비스에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면서 고품질 UI, UX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모두 지원하는 RIA 솔루션 시장이 확대

국내 RIA 마켓 시장, 2009~2015년 전망 (단위: 억 원)



자료: KRG (2012. 10. 19)

### Ⅲ. 국내외 정책 동향



# 1. 국내

## 가. 지식경제부

### □ '클라우드 지원센터' 역할 확대 (2012. 10. 10)

-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 클라우드 지원센터(Cloud Computing Support Center)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지경부가 설립한 산하기관
  - 클라우드 도입 및 산업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품 개발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테스트베드 환경도 제공
-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설립, 중소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클라우드 표준화 및 공개 SW 활성화, 클라우드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 방침

### □ IT 기술·시장 전망과 분석을 통한 미래 대비 (2012. 10. 10)

- 10월 1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IT 기술, 시장 전망 및 기업전략을 제시하는 '2013 IT산업전망 컨퍼런스'를 개최
  - 국내외 경제 및 IT 기술·시장 전망 등 차년도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
  - SW & IT 서비스, 스마트 기기 & 서비스, 핵심부품, 정보보호 및 보안, IT주력품목 등 최근 IT기술 트렌드, 시장 환경 변화, 경제·산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 추진 (2012. 10. 11)

-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확대, 공개SW 기반 최신기술 개발 등 공개SW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
  - 10월 11일 공개SW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개SW 기술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발표
-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IT분야에서 공개SW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개SW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

- 기존의 공개SW 도입 확대 정책과 더불어 개발자와 커뮤니티의 공개 SW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

### 공개SW의 가치

<b>기술 혁신</b>	-원천기술인 소스코드에 접근이 가능하여 선진 SW기술 습득 가능, 상용SW보다 기술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 용이
<b>고급 인력양성</b>	-최신 기술 소스코드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여 커뮤니티, 대학·연구소, 기업의 고급 인재양성 촉진
<b>종속성 극복</b>	-유망 공개SW 유입을 통해 글로벌 기업 독과점 구조인 SW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제고
<b>경제적 효율성</b>	-공개SW 활용으로 시간, 인력 및 개발투입 비용 등 SW 도입비용 절감

자료: 지식경제부 (2012.10)

- ‘SW 산업발전 및 SW융합 활성화를 위한 WBS 수행기업 간담회’를 개최 (2012. 10. 15)
  - 2013년 3월부터 완료되는 WBS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R&D 성과물의 성공적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6월 발표한 「SW R&D 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WBS 프로젝트 후속으로서 SW 전문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R&D 사업을 실시할 계획
  - 이를 통해, SW 전문기업들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산업융합을 이끄는 SW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 WBS(World Best SW) 프로젝트

(목적)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일류 SW개발  
 (기간) '10.10월 ~ '13.11월(총 3차에 걸쳐 과제 기획, '13.3월~11월 단계적 종료)  
 (규모) 27개 개발과제와 SW품질관리에 총2,623억 원 투입(정부 1,609억/민간 1,014억)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을 개정 (2012. 10. 23)
  -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고 95%를 상회하는 정부 R&D 성공률의 적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2013년부터 시행
    - 과제 선정 평가 시 '도전성' 배점 신설 및 '특허의 질' 중심으로 기술성 평가하여 R&D의 성공률이 '14~15년까지 50~60%로 적정화를 목표

### 중장기 기획형 사업의 선정평가 배점 비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목표 도전성	혁신성·차별성 10%	도전성·창의성 50%
능력/윤리성	연구팀의 능력 10%	연구팀의 능력과 윤리 20%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 30%	경제성 20%
기 타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10% 등	계획의 합리성 5% 등

자료: 지식경제부 (2012.10)

### 최종평가시 기술성 판단을 위한 정량 지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 삼극특허 등록 · 표준특허* 등록(※ 정보통신 과제) · 국내외 특허 등록 · 특허기술료 징수	특허 출원 제외
· 국내외 논문 발표	· 국내외 논문 발표(※ 원천기술형 과제)	제품개발형 과제 제외

자료: 지식경제부 (2012.10)

-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2012. 10. 24)
  - 2013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을 의무화를 골자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안)을 마련, 11월 13일까지 행정예고
    - 개정 예고된 기준은 SW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 것임
    - 이는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행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하였음
  - 그동안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잦은 과업변경과 개발지연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사업부실과 참여기업 수익성 및 SW근로자 노동환경 악화 등 SW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 지식경제부는 2008년 'SW사업 발주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건의 공공발주사업에 '요구사항 분석·적용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마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2. 5. 23)」 개정으로 '요구사항의 분석·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시를 개정하게 됨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 (2012. 10. 29)
  - 10월 29일 신성장동력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기업을 방문해 격려, 업계 간담회를 가짐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오는 2020년에는 국내기업이 선도해 클라우드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 국내 기술력 기초한 전략적 클라우드 연구개발(R&D) 추진,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의 산업·글로벌화 촉진, 클라우드 활용확산·동방성장형 생태계 조성 등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음

## 나. 행정안전부

- 「2012 데이터센터월드 컨퍼런스」에 참가 (2012. 10. 4)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대표단은 미국 네슈빌에서 열리는 「2012 데이터센터월드 컨퍼런스」에 참가해 IDC(Internet Data Center) 성공운영 사례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소개
    - 「데이터센터월드 컨퍼런스」는 세계 4천5백여 개 IDC가 회원사인 AFCOM(Association for Computer Operation Management)이 주관하는 IDC 부문 최대 규모 글로벌 컨퍼런스
  - 한국의 정부데이터센터 구축과 전산자원 통합과정, 주요성과와 운영 기술 등을 소개
-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부기관 간 이메일 및 자료유통 시스템 구축 (2012. 10. 15)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내부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부 기관간에 자유롭게 이메일을 비롯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부처 및 시·군·구 등) 통폐합이나 담당자 변경 등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간 자료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추진될 자료유통시스템 DB서버(이중화)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도 도입

업무망에서 메일이 불가능한 23개 기관 및 이용자수

번호	기관명	이용자수	번호	기관명	이용자수
1	감사원	1,310	13	통계청	3,155
2	법제처	252	14	방위사업청	2,017
3	국가보훈처	1,510	15	농촌진흥청	1,986
4	금융위원회	560	16	중소기업청	1,105
5	국민권익위원회	778	17	특허청	1,655
6	외교부	1,433	18	식품의약품안전청	1,939
7	국방부	10,244	19	기상청	1,309
8	지식경제부	1,484	20	해양경찰청	8,286
9	고용노동부	7,365	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6
10	여성가족부	275	22	특임장관실	56
11	국세청	21,721	23	국가인원위원회	240
12	조달청	1,179		합계	70,036

자료: 행정안전부 (2012.10)

□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개최 (2012. 10. 19)

- 행정안전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을 개최
  - 이번 포럼에는 19개국 장·차관을 비롯한 50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UN,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학계, 국내 IT(정보기술) 기업 등 총 700여명이 참여
  - 이번 포럼은 정부, 학계 및 기업, 국제기구 등 세 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

□ '글로벌 CIO 네트워크' 결성 주도 (2012. 10. 21)

- 전 세계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의 모임을 결성을 주도
  - 18~19일 개최된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50여개 참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 실제 준비 작업에 나설 예정
  - 글로벌 CIO 네트워크는 전자정부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모임 안에 중동, 아시아 등 권역별로 네트워크 포럼도 결성해 지역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 기관설명회 개최 (2012. 10. 26)

- 10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정보자원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모델(안) 및 활용방안, 개별기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관리·운영가이드 개선(안) 등 정보화 투자 효율화를 위한 이슈들이 논의
- 유지보수 산정 시 시스템 중요도나 유지보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정보자원 도입 가격에 단일 효율(7~8%)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적정 유지보수비 산정이 어려웠음
  -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유지보수 체계 개선(안)에서는 업무 중요도, 유지보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자원 등급측정 기준을 제시

□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MOU 체결 (2012. 10. 30)

-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사는 10월 29일 모바일 설치허용앱목록(White List)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공무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한 앱을 개인적으로 설치·사용할 경우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존재
  -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관리

- 중동 및 북아프리카 공공거버넌스 구축 지원 (2012. 10. 30)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공공거버넌스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10.29~30일 이틀간 파리에서 '제8차 중동·북아프리카-경제협력개발기구(MENA-OECD)회의 「열린 혁신 정부」 분과 국제회의\*」를 개최
    - 19개 중동·북아프리카(MENA) 회원국과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모여 「성공으로 가는 길 : 열린 혁신 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라는 의제로 의견을 교환
    - \* '중동·북아프리카-경제협력개발기구(Middle East and North Africa-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의 「열린 혁신 정부」 분과 국제회의'

## 다.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망을 통한 피싱(Phishing) 대책 마련 (2012. 10. 5)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계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한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피싱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
    - 주요 내용은 문자메시지 피싱 대책, 보이스피싱 대책, 메신저 피싱 및 피싱 사이트 대책, 피싱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입법화 이전 가이드라인 시행
-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사전점검 추진 (2012. 10. 08)
  -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취약점을 개선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수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추진할 계획
    - 11월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이벤트 분야, 인터넷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아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웹호스팅 분야를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지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

□ 한국, ICT 인프라 부문 세계 1위 (2012. 10. 11)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0월 11일 발표한 '12년 ICT 발전지수(IDI)에서 조사 대상 155개국 중 1위를 차지
  -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수로서, 국가 간 ICT 발전경로,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
-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 및 활용력 부문에서 세계 1위이며, 접근성(11위) 부문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12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 세부지표 순위

부 문	세 부 지 표	지표순위
ICT 접근성 (11위)	①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3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건수	66
	③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70
	④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21
	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
ICT 이용도 (1위)	⑥ 인터넷 이용자 비율	11
	⑦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4
	⑧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3
ICT 활용력 (1위)	⑨中等교육기관 총 취학률	40
	⑩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
	⑪ 성인 문해율	1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10)

-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발간 (2012. 10. 11)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 및 서비스 제공 업계의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안내서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을 10월 11일 발간
    - 스마트워크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
    -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학계, 통신 및 가전업계,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마련

**장애인이 스마트워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기준**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규정
입주시 설	출입구, 출입문, 복도 및 통로, 계단, 승강기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편의증진법)
작업공 간	스마트워크센터 내 이동성, 사무용 가구, 조명 및 모니터, 안내대 및 헬프데스크, 휴게실 등에 대한 접근성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10)

- 근거리통신망(NFC) 국가표준 확정 (2012. 10. 18)
  - 근거리통신망(NFC, Near Filed Communication) 기반의 모바일 터치 서비스 ‘애플릿 규격’과 ‘동글인터페이스 규격’을 국가표준인 방송통신 표준(KCS)으로 제정
    - 애플릿 규격은 스마트폰과 결제 동글(단말기)간 표준이고, 동글 인터페이스 규격은 해당 정보를 음식점이나 버스 운영사의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과 연동하는데 쓰이는 표준

- 표준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이통3사와 신용·교통카드사, 결제 수수료를 받는 VAN사, 유심(USIM) 제조사, 솔루션사, 학계 및 유관 기관 등이 모여 1년여 간의 의견 조율 끝에 확정
- 국내에선 통신사와 무관하게 NFC 기반의 모바일 터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됨

□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2012. 10. 25)

- “바른 다운로드를 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를 표제로 추진하는 ‘아름 Down’ 운동은 방통위와 플랫폼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방송·저작권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방송부문 굿 다운로더(Good Downloader)를 전개
- 2011년 영화, 음악 등 불법복제로 인해 약 2조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체인구 10명중 3명이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해 약 10억 건의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있는 실정
- 15개 방송사, 통신사, 방송관련 협·단체가 ‘방송콘텐츠 아름 Down 운동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통위와 공동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 활동에 나섬

## 라. 국방부

□ 전시 전략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 적용 추진 (2012. 10. 25)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
- 빅데이터 분석에 적용할 데이터는 영상과 음성으로 그동안 열영상 장비(TOD)나 CCTV 등을 통해 산출되는 영상과 음성 데이터는 해당 부대 내에서 처리하는 수준에 그침
- 2014년 가동하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와 연계, 빅데이터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
- 국방통합정보관리소가 가동하면 기존 77개의 전산소를 2개로 통합함에 따라 영상과 음성 데이터의 물리적 통합이 가능

## 마. 금융감독원

- 일회용비밀번호(OTP) 온라인 도입 추진 (2012. 10. 3)
  - 2013년부터 일회용비밀번호를 온라인 상에 등록해 전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OTP를 등록하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OT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바. 서울시

-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곳으로 통합하는 데이터뱅크를 구축 (2012. 10. 23)
  - 400종의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 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실시, 민간 개방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현재는 교통·환경·문화·관광·산업·생활·안전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각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산출돼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빅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
    - 표준화 기반 데이터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

## 사. 교통안전공단

### □ e-Call 서비스 개발 (2012. 10. 30)

- 교통사고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줄이고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개발
  - 자동차사고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머전시-콜(e-Call)'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하고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 'e-Call' 서비스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사고 발생 판단 단말기를 통해 사고정보를 e-Call센터(가칭)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
  - 연말부터 6개월간 ISP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업 방향성을 도출할 계획

### e-Call 서비스 개요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2.10)

## 2. 해외

- EU,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2012. 10. 5)
  - 유럽의회 등의 규정 검토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나 '동의'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안)에 나타난 많은 위임조항들의 필요성 및 내용을 검토
    - (개인정보의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속성과 유연성을 가진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 개념 수정 필요
    -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동의'를 가장 핵심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할 것을 확고히 해야 함
    - (과도한 행정입법의 제한 필요) 규정(안)은 많은 부분에서 유럽집행위원회가 규정의 내용을 대체,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정부 부처간 공개SW 공동 개발 확대 (2012. 10. 23)
  - 미국 정부 부처 간의 공개SW 개발 모델의 공동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소스 공개 노력 확대 추세
    -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개방형 리눅스 소스관리 시스템 깃(Git)에 기반한 협업 SW 및 호스팅 서비스인 깃허브(GitHub)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 미국 내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공개SW 개발 관행과 협업 강화는 IT 프로젝트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개발 소스의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다양한 외부 개발자들과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EU,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정 권고 (2012. 10. 25)

- EU 규제당국은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의 정보보호법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구글 측에 이에 대한 수정을 4개월 내에 실행할 것을 요청
  - EU는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 당국인 국립자유정보위원회의 주도하여 지난 3월 채택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검토
  - 이를 바탕으로 EU 회원국의 정보보호 책임자로 구성된 '아티클 29 워킹그룹'에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중 12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
  -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이번 검토는 각국 규제기관의 협력 하에 진행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 EU의 권고를 받은 구글은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의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다며 반박

□ 싱가포르 의회, 개인정보보호법(안) 통과 (2012. 10. 25)

- 싱가포르 정보·통신·예술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동 법안은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 제출
  - (적용범위) 동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지만, 법안의 제 3~6장은 민간부문에만 적용되므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보호 원칙)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고, 그 목적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수집, 이용, 공개 가능
  - (시행일) 법안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이나 수신거부목록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각각 14개월과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가. 패키지 SW 시장 동향

### 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업무 혁신을 위한 ERP 시스템 구축 사례 증가
  - 국내 기업들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ERP 시스템 구축 및 확대
    - (한화) SAP 전사자원관리(ERP)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고, 계열사별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구축
    - (KTDS) KT네트웍스의 클라우드 ERP 시스템 ‘워크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
    - (쌍용자동차) 2013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재무·회계 등 본사 업무용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 2) SCM(Supply Chain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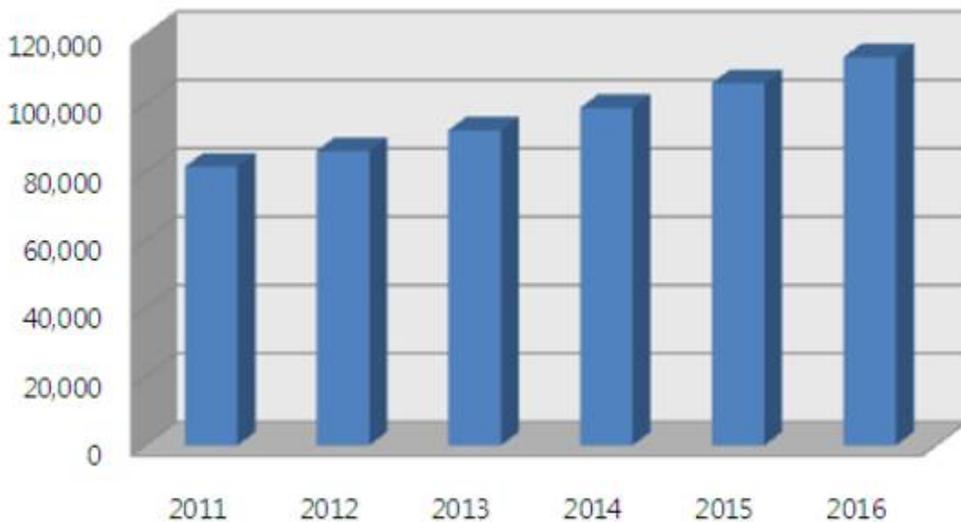
- 발전사, SCM으로 전기료 절감 해법 찾기 나섬
  -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회사들이 SCM 체계 고도화로 전기료 절감 해법 찾기에 나섬
    - 전기료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절감해 원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임
  - (한국남부발전) 지난 6월 SCM 사업자 공고를 내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
    - 연료와 발전 시설을 이루는 자재 구매 및 관리 효율화, 리드타임 감소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 (한국남동발전) 2020년까지 SCM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 3) BI(Business Intelligence)

#### □ 2012년 국내 BI SW시장 860억 원 전망

- (IDC) 전년 대비 5.7% 성장, 86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BI SW 시장은 815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6.1%의 성장률을 기록
  - 유럽 재정 위기 등 외부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국내 BI 시장 수요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회복세가 유지
-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6.9%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1000억 원을 넘어서고 2016년에는 1135억 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BI와 애널리틱스(분석) 솔루션 구축 및 환경 개선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 향후 국내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

한국 BI SW 시장 전망, 2012-2016 (단위: 백만 원)



자료: IDC (2012. 10. 10)

## 나. IT서비스 시장 동향

- 대형 IT서비스기업,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응 위해 신사업과 해외진출로 돌파구를 모색
  - 삼성SDS, SK C&C, LG CNS 등 이른바 IT서비스 빅3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응을 모색 중
    - SW산업진흥법 상 공공부문 입찰 참여제한 예외조항을 활용하거나 해외사업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임
    - 헬스케어, 전자문서, 국방IT 사업 등 새로운 융합사업은 물론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선보임

국내 IT서비스기업의 SW산업진흥법 대응 전략

기업	내용
삼성SDS	-중국, 인도 등에 발매자동화 설비(AFC)를 구축 -미국 남부지역 병원 네트워크인 크리스투스 헬스(CHRISTUS Health)와 10년간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공급 및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시장 진출
LG CNS	-입찰 참여제한 예외규정에는 안전성이 중요한 국방, 외교, 안보, 치안, 전력 등에는 대기업 SI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SK C&C	-북미 시장에서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대형 은행 등 금융 분야를 공략
코오롱베니트	-헬스케어 독자브랜드 'havit(해빛)'을 출범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 진출
포스코ICT	-포스데이타와 포스콘과의 합병을 통해 엔지니어링 IT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
동부CNI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 계열사로 지목, 확정될 경우 IT서비스와 전자기전의 본격적인 융합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아시아나IDT	-페이퍼리스 솔루션 기업 이파피루스와 정보보안·인증 기업 루멘소프트, 모바일 가상화 기업 퓨전데이타와 모바일 전자문서화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전자문서화(PPR: Paperless Process Revolution) 사업에 뛰어듦
한화S&C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빅데이터 아날라이저'를 선보이면서, 빅데이터 분석시장에 뛰어듦
동양시스템즈	-최근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인 톨론과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을 체결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IT서비스 기업, 재벌 기업집단의 SI사업 발주형태가 외부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
  - 공정거래위원회의 IT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와 정치권 및 여론의 지적에 따른 변화
    - 그룹 내부 물량이라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2011년 주요 IT서비스 기업 내부거래 매출액 현황

그룹	IT서비스 기업	전체매출	내부매출	비중
삼성	삼성SDS	3조9천525억 원	2조9천152억 원	73.76%
LG	LG CNS	2조3천억 원	1조1천502억 원	50.00%
SK	SK C&C	1조6천191억 원	1조599억 원	65.46%
포스코	포스코ICT	9천832억 원	6천974억 원	70.93%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6천682억 원	5천965억 원	89.27%
STX	포스텍	6천547억 원	4천465억 원	68.20%
한화	한화S&C	5천750억 원	3천340억 원	58.09%
동부	동부CNI	5천110억 원	2천246억 원	44.00%
롯데	롯데정보통신	4천626억 원	3천649억 원	78.90%
신세계	신세계I&C	3천371억 원	1천989억 원	59.00%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IDT	3천210억 원	1천199억 원	37.35%
동국제강	DK유엔씨	2천9억 원	904억 원	45.00%
대림	대림I&S	1천963억 원	1천601억 원	81.56%
CJ	CJ시스템즈	1천889억 원	1천782억 원	94.34%
동양	(구)동양시스템즈	1천559억 원	846억 원	54.27%
코오롱	코오롱베니트	1천165억 원	842억 원	72.27%
한진	한진정보통신	1천136억 원	567억 원	49.91%
GS	GS ITM	1천201억 원	988억 원	82.26%
세아	세아네트웍스	906억 원	454억 원	50.11%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견 IT서비스 기업, 공공 시장 공략을 위해 인력 충원과 개발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
  - KCC정보통신, 대교CNS, 대신정보통신 등 중견 IT서비스 업체들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공공 IT서비스 사업을 강화
  - 아이티센시스템즈, 핸디소프트 같은 인프라·SW 전문 업체들도 인력을 대거 충원하며 공공 IT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비
    - 중견·중소 IT서비스기업들이 SW산업진흥법 시행이 임박해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 중

**중견·중소 IT서비스업체 및 전문업체 공공 IT서비스 사업 대응 현황**

기업	대응 현황
KCC정보통신	-품질경영팀을 품질경영실로 격상, 프로젝트 리더(PL),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고급 개발자 교육 강화
대교CNS	-콜센터,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교육 등 솔루션 중심 IT서비스 사업에 초점 두고 인력 보강
대신정보통신	-인력 30% 증원, 금융사업본부를 금융공공솔루션사업본부로 개편
아이티센시스템즈	-인력을 200명 수준으로 늘린데 이어 내년엔 280명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
핸디소프트	-신규 인력 30명 충원하고 내년부터 중견 IT서비스 기업으로 변화 시도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나. 임베디드SW 시장 동향

- 임베디드SW업체, 개발 플랫폼 통합이나 사업 확대를 위해 협력 사례 증대
  - 임베디드 SW를 대상으로 개발 테스트 플랫폼을 통합하는 형태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이나 임베디드 플랫폼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기술협력을 추진
    - (오비고) 미국 임베디드업체 그린힐즈소프트웨어와 자동차, IPTV, 모바일, SW솔루션, 웹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영역에 파트너십을 체결
    - SW 개발 테스트 기업인 '커버리티'는 임베디드 모바일 SW 기업인 '윈드리버'가 제공하는 임베디드 SW를 대상으로 개발 테스트 플랫폼을 통합하는 형태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나섬

## 다. 공개 SW 시장 동향

-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이 공개SW의 상호 사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
  - 한중일 3국은 공개SW 기업과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공개SW를 적극적으로 교차 사용하는 내용에 합의할 예정
    - 한중일 3국은 상대국 공개SW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 각국의 공개 SW 전문기업과 기술을 목록으로 만들어 공유할 방침
    - 공개SW 상호 사용과 함께 3국 전문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해 공동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도 추진
- 오픈소스 분석엔진 'R'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 출시
  -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업체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분석엔진인 'R'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R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을 선보임
    - (LG CNS) 고급분석(AA) 센터에서 'R'의 상용화버전인 '스마트 R'을 개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급
    - (SAS) 데이터분석모델을 관리하는 'SAS 모델매니저'에 오픈소스 통계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R'을 지원

## 라. 신사업 시장 동향

###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ETRI-한국클라우드포럼, 클라우드 활성화 위한 MOU 체결
  - ETRI, 한국클라우드포럼 양 기관은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ETRI에서 개발 또는 개발 예정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산·학·연 간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한다는 계획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의 실용화를 모색하는 한편,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

### 2) 모바일(Mobile)

- 기업용SW업체, 소비자(B2C)용 ‘모바일 앱’ 시장 진출
  - 기업용 앱 개발에 주력해 왔던 국내 SW 업체들이 최근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앱’ 시장 진출을 시도
    - 기존 앱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기업용 앱으로 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B2C 시장을 타깃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

국내 SW기업의 소비자(B2C)용 ‘모바일 앱’ 출시 내용

기업	내용
웹케시	-지인들과 단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단골(DANGOL)'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
알서포트	-PC에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화면을 사용자 PC에서 그대로 보며 스마트폰 기능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모비즌(Mobizen)' 앱 출시
다우기술	-모바일 쿠폰으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e상품권 서비스로 '도넛북' 앱을 출시
미라지웍스- VM웨어코리아	-미라지웍스의 가상화 제품과 VM웨어의 데스크톱 가상화 제품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고 제안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3) SNS(Social Network Service) & Social Media

- 온라인 유통업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
  - 11번가, 옥션 등의 오픈마켓 업체는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마케팅 효과도 얻고 있음
    - 일부 업체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SNS 담당자를 채용함

온라인 유통업체 SNS 활용 내용

포털명	내용
11번가	-2012년 1월 자사의 페이스북을 오픈하고 활발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 -지난 9월에는 페이스북 2만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
G마켓	-2011년 11월부터 여행과 패션스토리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인터파크	-10월 초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통한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 하겠다고 선언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4) 검색서비스

- 인터넷 포털업계, 모바일 시장 경쟁력 부족 등으로 성장둔화
  - 포털 '파란'의 서비스 종료, '네이트'의 조직 재정비를 위한 희망퇴직 접수 등 실적 악화로 인한 고전
    - 뒤늦은 모바일 대응과 독자적 수익모델 부재 등이 경쟁력 악화의 주원인
  - 포털업체들은 모바일 광고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다양한 신사업에 뛰어듦

국내 포털 3사의 '성장둔화 탈출' 전략

기업	내용
네이버 (NHN)	-모바일메신저 '라인' (스티컴, 게임플랫폼 등) -앱, 만화, 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판매 (N스토어) -PC게임 디지털 유통(네이버 게임 플레이어)
다음 (다음커뮤니케이션)	-모바일메신저 '마이피플' (이모티콘, 게임플랫폼 등) -스마트 TV 셋톱박스 '다음TV+' -모바일 광고플랫폼 '아담' 운영
네이트 (SK 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 등 SNS·모바일 중심구조로 개편 -멜론·T스토어·게임 등 관계사 콘텐츠와 접목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5) 빅데이터

### □ 국내 IT서비스 기업들도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빅데이터 제품들을 선보이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주목
  -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주도해 온 빅데이터 솔루션 시장에 자체 개발한 제품들은 한국의 기업 상황에 맞게 개발 환경을 현지화시킴
  -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각광받는 '하둡'을 자체 기술력으로 검증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

국내 IT서비스기업들의 빅데이터 솔루션 출시 내용

기업	내용
LG CNS	-빅데이터 솔루션의 설치부터 비즈니스 활용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SBP)'을 출시 -SBP는 하둡 표준 배포판인 '빅팩(BigPack)'과 빅데이터 서버 관리 도구인 'SCM(Service&Configuration Manager)', 비즈니스 응용프로그램 자동 개발 도구인 'MR(MapReduce) 디자이너'로 구성
SK C&C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 비즈니스 방법론이 적용된 SNS 분석 기능을 탑재시켜 서비스를 제공 -스마트기기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패킷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신 서비스를 개발, SK텔레콤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일부 적용
삼성SDS	-빅데이터 솔루션을 유전자 정보 분석 관리 용도인 바이오인포매틱스에 특화 -대용량의 유전자 정보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바이오인포매틱스 플랫폼을 구축
한화S&C	-솔트룩스와 손잡고, 한화그룹 내부 계열사 업무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적용 -조직 내의 정형 및 비정형의 방대한 자료와 외부 지식 자산을 통합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가. 비즈니스 및 제품 동향

- (큐브리드) 빅데이터 시장 공략을 위해 '큐브리드 9' 베타 출시
  - 빅데이터 시장 공략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DBMS 제품 '큐브리드 9' 베타를 선보임
    - 다수의 장비에 분산돼 있는 DB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들웨어인 '큐브리드 샤드(shard)'가 추가
  
- (KT) 기업·공공기관용 모바일보안솔루션 'KT 통합 모바일보안솔루션' 출시
  - 모바일 단말관리, 위치기반의 도난·분실 대응, 복무 일정표 기반 제어 등을 제공
    - 제3자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과의 연동 등 기능을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제공
  
- (LG CNS) 기업고객 대상 하둡 기반 설치형 빅데이터 솔루션을 출시
  -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인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Smart Big Data Platform, 이하 SBP) 솔루션을 공개
    - 외국 IT벤더들이 주도하던 빅데이터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처음으로 뛰어들면서 시장판도 변화 예상
  
- (지란지교소프트) 클라우드 문서저장 서비스 '닥스트림' 개시
  - PC에서 문서파일만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시작
    - 문서파일만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동기화를 위해 별도로 디렉토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게 한 점이 특징

- (SKT) 소셜 분석 플랫폼인 '스마트 인사이트 2.0'을 출시, 빅데이터 시장에 본격 진출
  - 트위터와 댓글, 블로그 등을 분석해 체계적인 경영정보로 제공 해주는 소셜 분석 플랫폼 출시
    - 지리정보와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강점을 갖고 있음
  
- (안랩) 윈터치 개인 PC용 보안 솔루션 'V3 클릭' 미국 전역에 출시
  - HW와 SW융합 PC보안 솔루션을 통해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USB 기반 소형 HW에 백신 SW를 탑재한 신개념 보안 솔루션으로 안랩 최초의 융합 제품
  
- (날리지큐브) 직장인 SNS '오아시스 2.0' 포털 오픈
  - 직장인 지식포털에서 개편을 통해 지식공유를 넘어 '관심기반 SNS'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
    - 오아시스는 2011년 4월 국내 SW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경부와 NIPA 지원을 받아 개설
  
- (아이티센시스템즈) 소셜 분석 서비스 '소셜게이트' 출시
  - 소셜분석 기업인 타파크로스과 공동으로 소셜 분석과 소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게이트' 출시
    - 소셜분석은 고도화 된 언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 관련 이슈, 인식, 행동패턴 등의 데이터를 분석

## 2012년 10월 국내 SW 주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현황

업체명	출시 제품	비즈니스 전략
큐브리드	큐브리드9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산처리 기능과 여러 장비에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
KT	KT 통합 모바일 보안솔루션	-기업용 솔루션과 암호화 기술을 탑재한 공공기관용 솔루션 제공
LG CNS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Smart Big Data Platform) 솔루션	-빅데이터 시스템 표준 배포판인 '빅팩(BigPack)', 빅데이터 서버관리 도구인 'SCM(Service & Configuration Manager)', 비즈니스 응용프로그램 자동개발 도구인 'MR(맵리듀스) 디자이너'로 구성
날리지큐브	오아시스2.0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룹' 시스템을 만들기 가능
SKT	스마트 인사이트 2.0	-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 홍보, 프로모션, 위기관리, 고객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안랩	V3 클릭	-복잡한 다운로드나 인증, 설치 과정없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PC에 V3클릭을 연결하면 손쉽게 즉시 사용 가능
지란지교소프트	닥스트림	-상대적으로 문서를 많이 생성하고 관리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최근 문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퓨처시스템	위가디아 NFW	-하이브리드 앱 컨트롤 방식의 방화벽으로 기존 방화벽에서 처리하지 못한 앱 레벨의 취약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개발
아루바	인스턴트 엔터프라이즈	-최적화된 음성과 영상, 통합 스펙트럼 분석, 보안 기능 등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급 와이파이 기능을 제공
원제로소프트	이스캔(eScan)	-블루투스 스캐너와 스마트폰만 연결하면 재고관리와 출고검수 관리, 매입 및 매출 등의 업무가 가능
아이티센 시스템즈	소셜게이트	-공공기관을 위한 특화 서비스로, 정책 수립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나. 해외 진출

- IT서비스기업들, 2013년 1000억 베트남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전 치열
  - 10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컨설팅 사업이 이르면 2013년 초에 발주되는 상황
    - 국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정보화 사업 중 최대 규모인 이번 사업에 삼성SDS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수주전에 뛰어들 전망

베트남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기업 강점

기업	강점	사업제안 여부
삼성SDS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경험 -그룹 계열사 및 금융사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참여 검토중
현대정보기술	-베트남 금융IT 및 전자정부 프로젝트 다수 수행 경험 -국내 금융회사 등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참여 검토중
LG CNS	-그룹 계열사 및 금융사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미정
SK C&C	-그룹 계열사 및 금융사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미정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기업용SW업체,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 공략
  - 마인드웨어 등 국내 기업용 SW 솔루션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섬
    - 아마존, 구글, SAP 등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출시

기업용 SW 업체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동향

기업	서비스명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시기
마인드웨어 코퍼레이션즈	기업용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아툼(atoM)'	아마존 EC2	10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	스마트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현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의중	내년 초
소프트웨어 인라이프	실앱스닷컴 (SilApps.com)	구글 앱스 마켓 플레이스	11월 중
비즈테크앤 엑티모	다학생용 모바일 시간표 앱	SAP 앱스토어	서비스 론칭 준비중
JBT	필드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	SAP 앱스토어	서비스 론칭 준비중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다. 기업 간 협력 및 제휴 동향

- 패키지SW기업,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 국내 SW기업들이 VM웨어,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및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MSP) 계약 체결
    -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으로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목표

### 국내 SW기업과 글로벌 SW기업의 협력 사례

기업	내용
한컴-VM웨어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싱크프리 서버'의 해외 수출을 강화하고자 VM웨어의 이메일·협업 솔루션인 '짐브라 콜라보레이션 서버'를 연동시켜 '싱크프리 서버 포 짐브라' 개발 -가상화·클라우드 분야 강자인 VM웨어의 전세계 유통망을 활용, 글로벌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에서 단기간에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안랩-인텔	-국내외 금융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보유한 인텔과 협력을 통해 다중인증 보안 기술 'AOS 인텔 IPT'을 선보임
인포섹-한국CA테크놀로지스	-인포섹은 보안 스펙트럼을 보안컨설팅, 관제, 보안SI 사업 분야에서 인증 분야로까지 확장하고자 한국CA테크놀로지스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 -고급인증 서비스인 'CA 어쓰마인더 서비스'에 대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MSP) 계약을 체결
미라지웍스-VM웨어코리아	-미라지웍스의 가상화 제품과 VM웨어의 데스크톱 가상화 제품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고 제안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전문중소SW기업포럼이 참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시너지 창출

- 전문중소SW기업포럼은 중소기업 간에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3년째 진행 중
  - 포럼이 참여 기업 간 신뢰 형성과 함께 사업기회 포착, 연구개발 과제 마련, 참여사 솔루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2012년 전문중소SW기업포럼 현황

포럼명	내용
웹표준솔루션포럼	-웹표준 및 웹접근성 개선활동, 공동과제 수행, 30대 그룹 대표 웹 사이트 웹접근성 조사
클라우드서비스포럼	-오아시스 활성화, 중소기업 정보화 활용기여, 중고기업 필요에 맞춘 오아시스 클라우드 패키지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솔루션포럼	-참여기업 솔루션 공동 프레임워크 개발, 빅데이터 공통 브랜드 개발, 국내외 시장 공동 진출
SW테스팅기업포럼	-테스팅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일본 현지화 전략 가이드 마련, SW테스트 설계기법 세미나 개최
N스크린서비스 플랫폼연구협력포럼	-공동사업을 수주, N스크린 기반의 앱 및 웹사이트 제작도구 시연, N스크린 기반 앱 개발 가이드라인 협의
비즈니스인텔리전스포럼	-고객초청 세미나 개최, 관련 행사에 공동 전시부스 마련
3차원공간정보기반 건물통합서비스포럼	-공동 영업전략 수립, 공동 사업 제안, 공동 비즈니스 모델 마련.
PMO전문포럼	-프로젝트 관리 조직 이론체계와 가이드 마련, 콘퍼런스 개최, 교육 커리큘럼 마련
전시-아트융합SW전략포럼	-제초처 인식과 전시·예술과의 접목 방안 협의, 전시기법 조사
소셜미디어데이터포럼	-공동 비즈니스 모델 수립, 오픈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 소셜 리크루팅 비즈니스 모델 마련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라. SW 품질 동향

□ 2012년 10월 GS인증 획득 현황

2012년 10월 GS인증 획득 기업 및 제품 현황

기업명	대표자	제품명	특징
펜타시큐리티 시스템	이석우	다이아모 3.0	DB암호화 통합보안 솔루션으로서 데이터 암호화, 접근제어 및 감사 기능으로 기업 내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
지란지교소프트	오치영	모바일키퍼	모바일기기의 원격 또는 중앙관리를 통해 단말기 분실, 도난을 방지하고, 모바일오피스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App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거나, 카메라, 화면캡처 등의 디바이스 제어를 통해 모바일기기를 통한 기업의 정보유출에 대비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V. 주요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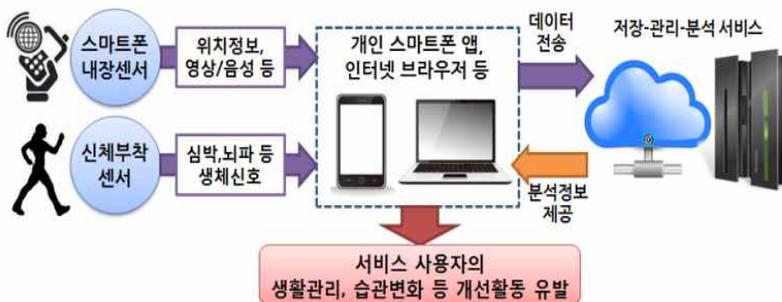
## 가. 개요

- 개인이 24시간 생활 동안 벌이는 행동과 신체 상태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측정, 기록하고 더 나아가 이를 상세히 분석해주는 ‘라이프트래킹 (Life-Tracking)’ 서비스와 관련 제품이 점차 확산
  - 최근 스마트 환경의 보편화와 각종 센서가 작고 저렴해지면서 쉽게 개인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로 측정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게 되면서 그 편익도 향상
  - 라이프트래킹 확산이 우리 생활에 가져올 미래 변화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나. 일상의 블랙박스, 라이프트래킹

- 라이프트래킹(Life-Tracking)은 개인의 행동과 신체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해주는 서비스
  -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일상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라이프로그(Life-Logging)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나, 데이터의 공유 및 분석 기능이 더욱 강조된 개념

### 라이프트래킹의 개념



자료: SERI(2012. 10)

- 기술진보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보편화
  - 스마트 환경이 정비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용자의 수고가 크게 경감
    -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모바일인터넷 접속이 상시화 되어 큰 노력 없이도 데이터의 저장, 관리가 가능
  
- 소형화된 센서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외장 액세서리로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구입과 휴대가 갈수록 용이
  - 최근에는 센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제작하고 기능을 최적화하여 가격을 절감 → 50~100달러 전후의 제품이 대거 보급

## 다. 라이프트래킹이 가져올 미래 변화상

### ① '즐거운' 게임형 자기혁신

- 라이프트래킹 데이터를 타인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수단으로 활용해 '즐거운 자기혁신(Funny Self-Innovation)'으로 연계
  - 자신의 라이프트래킹 방법과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와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혁신 의지를 효과적으로 고취
    - 연구결과 자신의 활동을 기록, 분석하는 사람은 활동량이 평균 26% 증가하여 체중 및 혈압감소 효과도 높다는 점이 입증

### ② 생활밀착형 헬스케어

- 라이프트래킹으로 축적된 생활습관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 라이프트래킹은 평소 생활습관을 상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칠만한 질환의 원인까지 발견하고 건강 악화 조짐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능

- 축적된 특정 음식물 섭취 또는 운동 후의 신체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설계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
- 환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진단-처치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적극 관리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능동적 존재로 진화→ 라이프트래킹과 헬스케어의 점점 확대는 필연적 흐름

### ③ 행동분석형 자녀관리

- 자녀의 라이프트래킹 데이터를 부모와의 교감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용
  - 앞으로 부모가 PC, 스마트폰에 연동된 라이프트래킹 기능을 이용해 자녀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받고 맞춤형 자녀지도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상할 전망
    - 장기간 자녀의 행동을 추적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해외 벤처기업들의 유망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국은 육아에 대한 정보교류와 수비지출이 매우 활발하고 부모의 IT기기 활용 수준도 높아 관련 시장 확대에 유리한 환경

### ④ 증강현실 결합 범죄예방

- 증강현실 디바이스와 라이프트래킹 서비스를 결합하여 범죄예방 수단으로 활용
  - 데이터 기록 확대는 범법행위 감소를 유발하는 효과가 우수
    - 개인용 블랙박스과 같은 착용형 라이브캠은 아직 틈새시장 제품에 불과하나 증강현실 디바이스와 결합되면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
    - 현재 고프로, 룩시 같은 개인용 라이브캠이 저변을 넓히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구글이 개발하는 안경형 증강현실 디바이스(2014년 출시 예정)와 같은 제품에 통합되어 발전할 것이 유력



자료: 룩시 홈페이지, 구글 프로젝트 글래스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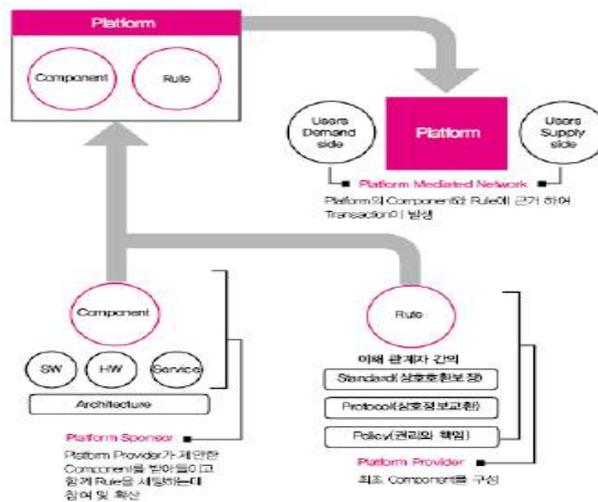
## 다. 시사점

- 라이프트래킹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
  - 일상생활과 밀착된 생활가전제품부터 라이프트래킹 기능을 접목하고 관련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
    - 기존 대표가전에 별도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생활습관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
    - 다양한 라이프트래킹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더욱 가치 있게 가공해주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후속전략
  
- 퍼스널 빅데이터 활용역량을 전략적으로 축적
  - 라이프트래킹 데이터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자산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및 관리 역량을 축적
    -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와 방안을 마련

## 가. 개요

-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그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을 이루고 있으며, IT시장을 지배하는 이들은 '빅자이언트(Big Giant)'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은 사용자가 트랜잭션 (User Transaction)에 필요한 컴포넌트(Component)와 룰/규칙(Rule)의 합집합(Set)으로 규정
  - 컴포넌트란 HW, SW 서비스모듈과 이를 포괄하는 아키텍처를 포함하며, 룰은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를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규칙을 의미
  -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컴포넌트를 초기에 제안 또는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플랫폼 프로바이더' 또는 '플랫폼 공급자'라고 정의

## 플랫폼과 플랫폼 매개 네트워크



자료: 네티컬 플랫폼 혁명

## 나. 룰 만들기(Rule Setting) 관점에서 살펴본 IT시장 지형

- 플랫폼 공급자로서 애플과 구글은 브라우저 등과 같은 다른 SW 컴포넌트들과 모바일 CPU 같은 HW 컴포넌트, 서버 환경 등의 컴포넌트를 경쟁적으로 자체 또는 M&A를 통해 내재화
  - 플랫폼 후원자들은 플랫폼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핵심 컴포넌트의 재 활용/재사용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지지세력
  - 플랫폼 공급자는 플랫폼 후원자들과 함께 시장의 파이를 공동으로 키우고, 시장지배 세력으로서 기득권을 형성하여, 시장을 과점하는 데 역점
    - 시장지배력은 바로 플랫폼 공급자 와 플랫폼 후원자들이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
  - 애플은 플랫폼 공급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플랫폼 후원자의 역할도 자처
  - 애플에 있어 시장지배력이란,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획하여 만들어내 고 유통시켜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1인 과점'을 의미
    - 룰은 완벽하게 수직계 열화하여 관리되는 완벽한 폐쇄형 생태계 시스템
  - 구글은 플랫폼 공급자로서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기득권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플랫폼 후원자들과 함께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룰을 결정
    - 단기간에 구글이 애플과의 플랫폼 경쟁에서 나름 의 선전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수평적 확장의 룰(Horizontal Rule Type) 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

## 다. 버티컬 플랫폼의 등장

- 버티컬 플랫폼은 앞서 설명한 빅자이언트들의 틈새에서 새롭게 부상 하고 있는 신흥 플랫폼 사업자들을 의미

- 아마존과 구글, 애플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자이언트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일부 써드 파티의 세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
- 빅자이언트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소셜/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 /커머스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동시에 노리기 보다는 하나의 버티컬 영역에 집중하여 공략하는 특징을 보임
  - 개발자를 대상으로 API를 공개하거나 지역 상점주 (Local Merchants)를 비롯한 제3의 세력에게 자사의 인프라를 열어주는 등 제2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시도를 앞 다뒀 진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
- 버티컬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입자 수/ 투자 자금(기업 가치)/ 공급자 사이드의 필요조건)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ROA 컨설팅이 선정
  - 1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 확보, 2,53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 확보, 개발자 대상으로 API 공개, 머천트(Merchant)에게 적절한 Tool 제공 등이 구체적인 조건

버티컬 플랫폼 사업자 선정 결과						
구분	업체	사업내용	가입자 (천명)	투자자금/ 기업가치	Open API	Merchant Tool
SNS	Foursquare	위치기반 SNS	20,000	\$714M	○	○
	Pinterest	이미지 공유	10,000	\$138M	○	○
	Instagram	이미지 활용, 공유	27,000	\$1.01B (FB인수)	○	○
Media & Contents	Zynga	소셜게임개발	11,000 (Mobile Daily User)	\$2.23B (2012.8.14 기준)	○	
	Spotify	음악 스트리밍	10,000	\$188M	○	
Cloud	Dropbox	클라우드기반 파일싱크 서비스	50,000	\$257M	○	
	Evernote	클라우드기반 데이터기록 서비스	34,000	\$166M	○	
Commerce	yelp	로컬 정보 검색 및 리뷰 제공	50,000 (UV)	\$1.46B (2012.8.14 기준)	○	
	Groupon	로컬 데일리 딜 제공	15,000 (UV)	\$4.88B (2012.8.14 기준)		○

자료: 버티컬 플랫폼 혁명

## 라. 버티컬 플랫폼: 넥스트 빅자이언트를 찾기 위한 노력

- 버티컬 플랫폼은 빅자이언트처럼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클라우드/ 커머스의 네 가지 영역 중 하나를 공략한 카테고리 킬러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시점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빅자이언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버티컬 사업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혁명을 통해 시장 주도 세력에도 결국에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현재 시점은 빅자이언트와 버티컬 사업자가 공존하는 과도기
    - '넥스트빅자이언트'가 될 만한 업체를 키워내기 위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VI. 월간 SW 이슈 분석



## 가. 개요

-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는 일반 대중의 참여로 진행되는 글로벌 빅데이터 프로젝트
  -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시각화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Human Face of Big Data)’ 등장
    -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전용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개시
    - iOS 전용 앱은 10월 11일 출시
    -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나. 프로젝트 기능 및 배경

-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앱은 미래 희망이나 관심사, 가족관, 수면 형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60여개의 설문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저장
  - 또한 모바일 단말기에 탑재된 위치센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주요 활동시간이나 이동거리, 평균 이동속도 등의 데이터를 확보
    - 해당 앱은 8개 언어를 지원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응답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음은 물론 자신과 유사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도플갱어(Data Doppelganger)’를 찾는 것도 가능

##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이용 화면



자료: Ars Technica

-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차례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진작가 릭 스몰란(Rick Smolan)의 주도하에 진행
  - IT 솔루션 업체 EMC를 주축으로 네트워킹 솔루션 업체 시스코, 국제 화물운송 서비스 업체 페덱스 등이 후원사로 참여
- 현재 수집된 데이터들은 시각화 및 해석 과정을 거쳐 추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
  - 이미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는 ‘미션 컨트롤(Mission Control)’ 이벤트 개최 (2012. 10.2)
  - 최종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인포그래픽 형태로 가공되어 오는 11월 30일 서적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2013년에는 관련 다큐멘터리가 TV로 방영될 예정

## 다.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전환의 계기로 주목
  - 릭 스몰란은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빅데이터가 인류의 삶에 있어 인터넷을 능가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중 일부 사례를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EMC 또한 “개인이 일생 동안 발생시키는 데이터의 양이 미국 의회 도서관 보유 데이터의 70배”라며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
  - 한편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우려하는 일반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릭 스몰란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빅데이터가 곧 ‘빅 브라더 (Big Brother)’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 실제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 앱은 사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는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도 불필요

### 가. 스마트 교육의 개요

-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개발을 위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 체제를 의미
  - 기존 교육 환경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스마트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교과서 무선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
  -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사업을 앞두고 전자출판·교탁 및 관련 SW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 특히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콘텐츠와 단말기 개발 등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스마트교육의 확대는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IT산업 전반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콘텐츠 산업 및 인프라 산업 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 및 클라우드 디지털교과서 표준을 선도해 국가 기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 스마트 교육의 배경

- 특정한 시간에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받던 기존 교육이 아닌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콘텐츠 무선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교육이 떠오르고 있음
  - 스마트교육은 단순히 시간, 공간의 제약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 지식정보화와 스마트 기기의 출현 등이 점차 개인별 능동적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
  - 정부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콘텐츠와 단말기 개발 등 스마트 교육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다. 스마트 교육에 대한 정책

- 정부의 스마트교육 정책은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교육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책을 발표
  - 정책은 디지털교과서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보급 및 온라인수업에 관한 내용으로 교실의 변화에 중점을 둠
    - 교육 수요자가 원하고 요구에 맞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을 마련하여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
  - 정부는 2012~2015년까지 스마트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2015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한다는 계획
    - 디지털교과서 등을 매개체로 한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평가도 활성화될 전망
    - 2015년까지 전체 초·중·고교의 30%에 온라인 수업을 도입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교육콘텐츠 저작물을 2만건 이상 제공한다는 목표

## 스마트교육의 비전 및 추진과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6)

## 국내 교육 시스템 변천사

구분	전통적인 교실	멀티 강의실	첨단 강의실	스마트 강의실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중·후반 ~ 2002년	2003년 ~ 2010년	2011년 이후
주요제품	흑판, 분필	프로젝터, 스크린	전자칠판, 전자교탁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학습SW

자료: 컴퓨터월드 (2012. 4)

## 라. 스마트 교육의 전망

- 정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에 따라 관련 시장도 확대가 예상됨
  - 2010년 1,602억 원 규모의 전자칠판·교탁, 관련 SW 등의 디지털 강의 시스템 시장도 성장 예상
    -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등을 공급하는 조달부문 시장의 비중이 커짐

정부 교육정책에 따른 스마트 스쿨 관련 시장 예측 (단위: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교육용스마트기기	200	300	1,250	2,550	2,896	2,114	8,840
디지털 교과서	150	180	200	250	1,500	4,200	6,480
스마트 스쿨 시범 구축	-	-	120	160	120	120	520
지자체 혁신도시 스마트 스쿨	-	123	280	180	250	500	1,333
교과서실제(중·고교)	850	2,000	3,300	3,300	3,600	1,500	14,550
전원학교	513	127	39	39	-	-	718
기업 민수시장	50	80	130	200	350	600	1,410
대학, 군부대 시장	150	250	300	400	500	900	2,500
사교육 부문	80	120	300	450	500	850	2,300
예산총계	1,993	3,180	5,919	7,529	9,716	10,814	38,651
전자칠판 부문 예산 예산	1,500	2,000	3,000	4,500	6,500	8,000	

자료: 컴퓨터월드 (2012. 4)

- 각종 포털 업체도 '스마트 러닝'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섬
  - 네이버는 미술, 국사 공부를 돕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음은 '다음 키즈짱'의 '학습'으로 스마트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마. 스마트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 스마트 교육의 확대는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IT산업 전반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스마트 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
  
- 스마트 교육이 자리매김하고 디지털교과서가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계와 소통기반 정책 혁신이 선행
  - 학교의 인프라 확충과 교사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적 배려, 각고의 노력이 필요
    - 교사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교육 기회 제공 등도 필요